

(사)한국물류협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개최

GS리테일 금탑산업훈장 수상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가 주최하는 2005년도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이 지난 달 15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서병륜 (사)한국물류협회장, 물류산업계 및 학계 인사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 룸에서 거행됐다.

한국물류대상은 한국물류협회, 건설교통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1993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물류부문 정부 포상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류혁신에 노력한 기업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위상이 격상되어 올해부터는 금탑산업훈장을 최고상으로 수여하게 됐다.

올해는 종합유통 전문회사로 아웃소싱 물류를 활성화해 물류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주)GS리테일(대표 허승조)이 금탑산업훈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이재희)와 하이비즈니스로지스틱스(주)(대표 정준행)이 산업포장을 수상하는 등 25개 단체 및 개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화:(02)2026-8230, 2026-8166 팩스:(02)2026-8231



▲ (사)한국물류협회 한국물류대상 시상식 개최

(사)한국물류협회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 개최

‘택배포장 표준화 추진사례’ 발표

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 건설교통부, 매일경제신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물류신문, 한국해운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3회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가 지난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산·학·연, 정부기관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 정책과 연구성과, 성공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번 제13회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는 ‘Logistics, An Invisible Way to New World’ 라는 주제 하에, 국내 모든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계에서 근무하는 물류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컨퍼런스 취지인 ‘New Trend’, ‘New Technology’, ‘New Concept’ 을 바탕으로 물류정책과 전략, 선진물류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물류업계가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물류표준화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에서는 한국포장연구소 이명훈 소장이 ‘택배포장 표준화 추



▲ (사)한국물류협회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 개최

유관단체

진사례'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국내 택배산업현황과 국내 택배 포장현황, 표준포장 설계 및 표준파렛트 적재방법과 적재효율분석을 요약했다.

한편 서병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류중심테마가 되고 있는 SCM, 정보통신의 발달 결과로 기대되고 있는 RFID 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 실현, 친환경을 위한 회수물류체계 개발 등, 물류진화를 통한 우리나라 물류 선진화가 모색돼야 할 것'이라며 '물류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수송 장비, 보관 설비, 하역 장비 등 관련 물류시설의 규격을 통일시켜 물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한국포장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논문발표회 개최

다양한 주제 논문발표

(사)한국포장학회(회장 김덕웅)는 지난 달 11일 한양여자대학에서 2005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 (사)한국포장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논문발표회 개최

제12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신세계 이마트 전태현 상무의 'HACCP와 유통', 환경부 자원 재활용과 박일호 과장의 '자원순환형 사회를 향한 정책방향', 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김종경 교수의 '과채류 포장용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물성 분석', 에스팩 손기주 대표의 '농수산물 포장용 상자의 표준화 모델 개발' 등 모두 10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환경부 박일호 과장은 포장폐기물 중심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향한 정책방향에 대해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정책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 폐기물 발생을 억제 ▲ 원재료 소비 감소 ▲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구조 개선 유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내 포장폐기물 유형에서 포장이 3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업폐기물(28.6%), 음식폐기물(17.1%), 건축폐기물(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 과장은 "정부와 기업, 국민이 자원 순화되는 사회의 구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활용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포장학회 김덕웅 회장은 "앞으로 학회는 활발한 연구를 통해 포장산업이 더욱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상품진흥원	국내 최대규모 친환경상품전시회 개최
-----------------	----------------------------

에코커뮤니케이션 기반, 친환경상품교류와 체험의 장

친환경상품진흥원(원장 이상영)는 「2005 친환경상품전시회」를 지난 달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했다.

'자연,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코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친환경상품진흥원, 경기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재단, MBC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산림청, 고양시, 전경련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열렸다.

친환경상품 전시관에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마크·우수재활용 마크 등 국가공인 친환경마크 인증업체와 환경성이 검증된 친환경상품 생산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 제품의 전시뿐만 아니라 제품의 친환경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소개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 전시회 기간 중 소비자·환경단체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하는 초록 페스티벌 행사들이 진행됐다.

유관단체

이번 전시회에서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의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를 개최해 친환경상품 구매방법 교육과 함께 친환경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독려했다.

또한 전시회 공동 주관기관인 경기도는 금번 전시회에서 '경기도의 녹색구매'를 선포하고,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와 경제단체(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및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시민단체(환경재단 및 경기의제21)가 참여하는 녹색구매 공동실천협약을 체결,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녹색구매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다.

이밖에도 중국표준인증센터 관계자를 초청, 중국의 절수 및 에너지절약 인증제도를 소개하는 '중국절전/절수 인증설명회'를 비롯해 '로하스 마케팅 성공사례 발표회', '2005 건강주택 포럼', '환경성적표지 국제워크숍', '환경친화기업워크숍' 등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들은 기업들에게 국내외의 친환경상품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 관계자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와 함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친환경상품전시회는 국내·외의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유통 주체간의 정보교류와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친환경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등 친환경상품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블루오션으로서의 친환경상품시장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지원과 참여, 그리고 국민들의 친환경상품 선호 및 사용 확산을 위해 수단으로 친환경상품 전시회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친환경상품전시회를 국제적으로도 명망 있는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제 21회 포장기술인 세미나 개최

'Web Handling 이론과 실제 파악

한국포장기술인협회(회장 김영호)는 지난 달 11일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제21회 포장기술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Web Handling에 있어서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Web 상태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제지·필름·금속·부직포 등) 소재나 가공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Web의 기본 성질, Web 이송에서의 마찰과 공기유입, 사행거동과 주름, 장력제어 문제, 감김롤에 서의 정력과 토크, 직경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신기현 교수와 성안기계공업(주)의 권



▲ 한국포장기술인협회 제 21회 포장기술인 세미나 개최

순오 박사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Web 관련 제품을 생산·가공 업체와 관련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토론과 논의로 진행됐다.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김영호 소장은 '세미나가 포장 현장에서의 기술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포장기술인들의 기술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제9회 금형의 날 개최

올해의 금형인 등 포상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동섭)이 주최하는 『금형의 날』 기념행사가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 김동섭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우에다가쓰히로 일본금형공업회 회장 등 정부, 업계, 학계의 금형산업 관계자 약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달 18일 여의도63빌딩(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금형의 날 행사는 IMF 경제위기 시기인 97년 11월 20일, 금형산업 발전을

유관단체

위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이래 내수침체, 고유가, 환율급락 및 원자재난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수출 효자 산업으로 크게 성장, '94년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1.7억불) 시현 후 올해의 경우 수출 12억불, 무역수지 흑자 10억불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형의 날」에 참석한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모든 제조업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인 금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필요성을 역설하고, IT기술을 금형산업에 접목시켜 고정밀·고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생산해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SPEED 금형' 전략의 추진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SPEED 금형' 전략 추진을 위해 고부가가치, 고생산성, 장수명, 초정밀 금형 개발 등 금형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IT 및 BIO분야에서 요구되는 초미세금형 등 새로운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강화 등 기업의 체질 개선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금형인' 을 비롯해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1명), 산업자원부장관표창(3명) 등 그간 금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 올해의 금형인으로 재영솔루텍(주) 김학권 대표이사가 선정됐으며 대통령표창 외국인 부문에는 오오가끼세이코(주) 우에다 가쓰히로(上田勝弘) 대표이사(현 일본금형공업회 회장)가 수상했다.

또한 구일정공(주) 김성호 대표이사가 유공자 부문으로 수상했으며 국무총리표창에 진유사 천두만 대표를 비롯해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청장 표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표창,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표창 등 금형산업 발전에 기여한 총 2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형의 날」 행사에 앞서 진행된 「한·일 금형산업포럼」은 '변화의 시대, 금형업체 CEO의 역할과 과제' 라는 주제로 열렸다.

2003년 11월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한 「한·일 금형산업포럼」은 급변하는 국제기술협력 환경하에서 금형산업의 최대 교역국인 양국의 금형산업의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례화된 교류 협력을 통해 금형업계의 초정밀 금형기술 확보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골판지포장업계 인력고도화 사업 참여
----------------------	----------------------------

중소기업청 지원 6개월간 수행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이 정부로부터 인력고도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 골판지포장업종 인력고도화 사업에 참여한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인력 고도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필요인재를 확보하고, 재직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기법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조합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게 됐다.

골판지포장조합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민대학교를 위탁기관으로 MOU를 체결하고, 전국 골판지포장 인력 및 운송시스템 실태조사, 골판지포장 최고경영자 워크숍, 첨단 골판지포장 설비 직무 훈련 교육, 골판지포장 신기술 교재개발 보급 사업, 골판지포장 기업 안내책자 발간과 사내 동아리 지원사업 등 여섯 가지의 단위사업을 6개월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품질재단

ISO 22000 규격 발효

희망사 모집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인증센터(센터장 김우현)는 지난 9월 1일 국제 인증규격인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규격이 확정, 발효됨에 따라 식품 포장업체 인증 희망회사를 모집한다.

ISO 22000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포장, 유통,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단계나 생산조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HACCP을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내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식품안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품질재단 관계자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민간차원에서 인증을 한다는 면에서 기업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원료에서 유통, 식품 및 장비, 포장재 등 관련 업체도 규격의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의 : 한국품질재단 인증본부 식품안전그룹 윤석운 박사 02-2025-9000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Microflute 신기술개발 사업 최종 평가 실시

이학래 서울대 교수 참여, 최종 심사 받아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이 3개년의 기간에 걸쳐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해온 Microflute 골판지포장재 신기술개발 사업을 지난 7월 말일자로 완료했다.

지난 달 10일에 이학래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 최종 심사평가를 받은 조합은 동 연구사업을 위해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Microflute 신기술개발 사업 최종 평가 실시

강원대학교(연구책임자 조병목 교수)와 충북대학교(연구책임자 박종문 교수)를 위탁 연구기관으로 지정, 공동연구를 실시해 왔다. 조합은 그동안 3차례에 걸친 Mill 테스트를 통해 골판지원지, 골판지, 골판지상자 시제품을 생산하고, 일곱 차례에 이르는 국제 전시회 및 관련 학회 발표를 통해 Microflute골판지포장재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기 납품단가 지수 조사 발표

대기업 비용전가 따른 단가 하락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변동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하도급거래가 활발한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 기타 업종의 1백여개 중소기업 및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2백여개 품목이며, 6개월마다 납품단가 지수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변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 조선업종 등 주요업종 213개 품목의 '05. 9월 납품단가 지수는 99.1('05. 1월 기준=100)로 '05. 1월에 비해 0.9% 하락했으며, 조사응답 업체의 44.6%가 납품단가의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임금인상분·원자재가격 상승분·환차손을 납품중소기업에 전가"를 지적했다.

특히 전자업종에서 납품단가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3.4%)하였으나, 자동차 업종은 대기업의 원자재가 인상분 일부반영으로 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68.9%가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납품단가 현실화"를 들었으며, 23.3%는 "일정기간 납품물량 보장"을 요구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80%가 '05. 9월의 생산원가(원자재가, 인건비등)가 '05. 1월에 비교하여 10.7% 상승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조선업종의 생산원가가 22.3%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인하된 반면 생산원가는 큰 폭으로 인상,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납품단가 등 질적인 협력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대기업, 정부 등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질적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현실화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수이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주요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대기업으로 하여금 납품단가 변동내역, 납품단가 결정 기준, 원자재가 변동 상황 등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토록 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

세분기준, 이번달 중 확정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가 내년부터 이력추적관리를 토대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는 표준재배지침이 마련된 농산물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관련된 세부기준은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현재 이력추적관리의 전선시스템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생산·유통·판매자가 이력추적농산물을 취급하는 단계에서 기록, 관리해야 하는 이력의 내용과 보관기간 등 세부기준을 이번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AP 도입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과 함께 예산확보도 함께 추진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년도 본격사업을 위해 예산도 올해 28억원보다 46%가량 늘어난 38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또 재배농가가 준수해야 할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등 각종 기준도 확정할 계획이다.

재배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은 현재 1백7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나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한 후 국제적인 GAP 기준 범위내에서 최종 확정된다.

GAP 제도는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생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를 제시하고 있다.